# '제14회 고려인의 날' 행사 화합과 나눔 감동 배가

## 고려인동포·선주민 600여 명 어우러져 역사와 문화 공감

'역사마을 1번지' 광주 고려인마을에서 고려인동포와 선주민이 함께 어우러져 역사와 문화를 나누는 '제14회 고려인의 날 기념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지난 18일 광산구 월곡동 홍범도공원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고려인동포와 지역주민, 각계 인사 등 600여 명이 참석해 화합과 상생의 의미를 되새겼다.

사단법인 고려인마을이 주최하고 남도일보·고려인동행위원회가 주관했으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재외동포청이 후원했다.

이번 행사는 고려인 선조들의 항일독립운동과 강제이주 역사를 기억하고, 조상의 나라로 돌아와 새로운 삶을 일궈가는 고려인동포들의 정착과 자립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고려인마을이 매년 10월 셋째 주 일요일로 지정해 기념하는 '고려인의 날'과 남도일보가 9년째 이어온 대표 사회공헌 행사인 '다문화큰잔치'가 결합하면서 축제의 의미를 더했다.

이날 행사장에서는 고려인동포와 선주민들이 다양한 문화공연과 먹거리를 함께 즐기며 서로의 삶과 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세대와 국적, 언어의 차이를 넘어 하나의 이웃으로 어우러진 축제장은 웃음과 활기로 가득했다.

또한 고려인마을 발전과 동포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헌신한 마을지도자와 지역사회 인사들에 대한 시상식도 마련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상과 광산구청장상, 국회의원상 등을 수여하고 감사패와 감사장을 전달하며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아울러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아웃도어·스포츠의류 전문업체 대성스포츠 최진기 대표가 후원하는 장학금 전달식도 열려 고려인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했다.

신조야 고려인마을 대표는 "고려인의 날은 선조들이 겪은 고난의 역사를 기억하는 동시에 조상의 나라로 돌아온 동포들이 지역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확인하는 뜻깊은 날"이라며 "앞으로도 선주민과 고려인동포가 서로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제14회 고려인의 날 행사가 지난 18일 광산구 월곡동 홍범도공원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에는 고려인동포와 지역주민, 각계 인사 등 600여 명이 참석해 화합과 상생의 의미를 되새겼다.




### '10.29 이태원참사' 4주기 맞아

## 기억과 진실의 그리스도인 예배

10.29이태원참사 4주기를 맞아 '기억과 진실의 그리스도인 예배'를 드렸다.

'10.29 이태원참사를 기억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모임'은 지난 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일어난 참사를 기억하고 주모하며 다시는 이런 참사가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는 예배를 드린 것.

'10.29 이태원참사를 기억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모임'은 10월 22일(목) 오후 7시 30분 종로구 사직로 130 적선빌딩 1층(경복궁역 6번 출구) 〈별들의 집〉에서 주모와 기억예배를 드렸다.

# 광주기독병원, 지역책임의료기관 역할 강화

## 2026년 하반기 원내 대표협의체 개최
## 2027년 지역 필수의료 대응방향 논의

광주기독병원(원장 이승욱)은 10월 14일 '2026년 하반기 원내 대표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공공보건의료 협력사업 주진 현황을 공유하며 2027년 사업 주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중증응급 이송·전원 및 진료협력, 일차의료·돌봄 협력, 인력양성 등 주요 사업 주진 현황을 공유하고, 사업별 개선 과제와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퇴원 후 돌봄이 필요한 환자의 적극적인 발굴과 지역사회 연계 방안을 비롯해 공공보건의료 공동 캠페인 정례화, 병원의 전문성과 교육 역량을 활용한 지역사회 교육 확대, 인력양성 대상 구체화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또한 진도군과의 업무협약 이후 실질적인 협력사업 주진 방안도 모색했다.

김병석 부원장(공공의료본부 본부장)은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진료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의료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주민에게 필요한 필수의료와 돌봄이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기독병원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2027년 공공보건의료 협력사업 계획을 구체화하고, 지역 필수의료·돌봄 협력체계 강화에 힘쓸 계획이다.



광주기독병원이 지난 14일 2026년 하반기 원내 대표협의체회의를 갖고 공공보건의료 협력사업 추진현황 공유 및 2027년 사업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 사설



文藏 이박행 목사
미션21 주필
한국교회생명신학포럼 대표
건강한교회와사회포럼 상임대표
광주YMCA선교위원

# 기억을 넘어 공존으로, 고려인 90년의 과제

지난 18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한국·카자흐스탄 국제포럼은 고려인의 역사를 오늘의 책임으로 불러냈다. '두 개의 역사, 하나의 무대'라는 주제는 외교적 수사를 넘어선다. 강제이주의 고통 속에서도 언어와 문화를 지켜온 사람들의 삶을 함께 기억하고, 그 기억을 다음 세대의 평화와 공존으로 이어가자는 요청이다. 2027년 고려인 강제이주 90주년을 앞둔 광주기 깊이 새겨야 할 메시지다.

1932년 설립된 고려극장은 단순한 해외 동포 예술단체가 아니다.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낯선 땅으로 옮겨진 이들에게 우리말과 노래, 춤과 이야기는 공동체를 지탱하는 힘이었다. 무대는 잃어버린 고향을 기억하는 자리였으며, 흩어진 사람들이 자신의 존엄을 확인하는 공간이었다. 고려극장의 역사는 문화예술이 생존의 주변부에 놓인 장식이 아니라 인간과 공동체를 살리는 토대임을 증언한다.

그러므로 90주년 기념사업은 성대한 행사와 일회성 공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기념식의 규모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남길 것인가 하는 물음이다. 생존자의 증언과 기록의 기억, 공연 대본과 사진, 음악과 무용 자료를 체계적으로 모으고 보존해야 한다. 흩어진 자료를 공동 아카이브로 연결하고 연구와 교육에 활용할 때, 기념은 비로소 다음 세대가 접근할 수 있는 공동의 자산이 된다.

이번 포럼에서 제안된 국제공동연구와 공동창작도 같은 관점에서 추진해야 한다. 해외 공연을 조정하고 관람하는 방식만으로는 관계가 깊어지기 어렵다. 광주와 알마티의 예술가와 연구자들이 함께 머물며 작업하고, 서로의 언어로 역사를 해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고려인 예술가를 초대받는 손님으로만 대하지 말고 기획과 제작, 평가를 함께하는 동등한 주체로 세워야 한다. 협력의 성과 역시 공연 횟수보다 관계의 지속성과 공동의 창작 역량으로 판단해야 한다.

광주는 민주·인권·평화를 말해온 도시이자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지향하는 도시다. 그 이름의 무게는 국제행사의 숫자로 증명되지 않는다. 지역에 살아가는 고려인 주민의 목소리를 얼마나 듣고 있는지, 이들의 언어와 문화가 도시의 일상에서 존중받는지 돌아보아야 한다. 무대 위의 고려인을 환영하면서 이웃으로 살아가는 고려인의 어려움을 외면한다면 기념의 진정성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문화교류와 생활 속 환대는 함께 가야 한다.

한국교회에도 이 과제는 남의 일이 아니다. 성경이 기르치는 나그네 사랑은 동정의 말이나 일시적 구호로 완성되지 않는다. 낯선 땅에서 살아가는 이웃의 이름을 부르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살아갈 자리를 마련하는 실천이어야 한다. 교회는 고려인 공동체를 도움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시선을 넘어 신앙과 삶을 나눌 동반자로 만나야 한다. 언어교육과 자녀 돌봄, 문화예술 활동을 지역사회와 연결하는 일은 이러한 환대를 구체화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주진 주체들은 공동의 실행계획과 책임 구조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문화기관과 지방정부, 대학과 시민사회, 고려인 공동체가 사업의 우선순위를 함께 정하고 예산과 성과를 투명하게 공유해야 한다. 특히 청년들이 기록과 번역, 창작에 참여할 통로를 열어야 기억의 계승도 살아 있는 배움이 된다.

강제이주 90주년은 슬픔을 되풀이해 확인하는 날을 넘어, 인간을 뿌리째 옮겨놓는 폭력에 맞서 존엄과 연대를 다짐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두 나라가 하나의 무대에서 만난 뜻도 여기에 있다. 기억은 기록으로 남고, 기록은 만남으로 이어지며, 만남은 공존의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기념사업의 공적인 책임이다. 광주와 한국교회가 그 길에 책임 있게 동행하기를 기대한다.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전도용품·기념품·기획상품

**전도용품**

· 하나님 말씀과 교회를 항상 기억할수 있는 아이디어 상품 (100원~200원대)
· 전도 및 심방시 사용 할 수 있는 심방 전도용품

**기념품&행사용품**

· 위임, 임직, 헌당 등 각종 행사에 맞는 제품
· 초청장, 식순, 기념패, 기념품을 한 곳에서 편리하게 마련할 수 있습니다.
· 성경과 교회가 디자인 된 주일학교 가방 및 전도용 가방
· **고급타올 및 우산, 예배상, 무릎담요**

**기획상품**

· 핸드 페인팅 도자기 그릇
· 전통옹기찬기
· 아름다운 문양의 공기대접
· 강화유리접시
· 키친아트 파카글라스
· 다양한 그릇, 잡화, 생활용품

**(이 모든 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대경물산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 475-35 (전대 치과대학 맞은편)
TEL.062)430-5635 FAX.575-5635
H·P·010-2662-5440



# 교단·노회 탈퇴에 관한 알림

찬송하는교회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선교활동과 복음전파의 사명을 더욱 충실히 감당하기 위하여 공동의회의 결의에 따라 2026년 10월 10일부로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주제일노회를 탈퇴하기로 결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찬송하는교회는 앞으로도 복음전파와 선교의 사명을 성실히 감당해 나가겠습니다.

2026년 10월 10일

찬송하는교회 **담임목사 황규승**